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201호 【루계 제24979호】 주체10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9일 평양시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2호구선거장에 나가시여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 일흔돐,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인민의 진정한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선거장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건국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여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들을 받으시고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수 허명금동무와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2가공직장 직장장 신순대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 그들의 공로를 평가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거장에서 나오시자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던 선거자들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선거에 참가한 크나큰 영광을 지닌 선거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의 99.97% 참가

【평양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체 인민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일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선거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년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투표함에 투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비상한 열의를 안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구선거위원회들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

【평양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9일 각지 선거장들에 나가 선거자들과 함께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평양시 제117호선거구 제6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선우옥과 선교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리은경에게, 최룡해동지는 평양시 제169호선거구 제6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원장 리현광과 대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나노기술연구소 소장 조성철에게, 최태복동지는 평양시 제209호선거구 제1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박민열과 은정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 류성은에게, 양형섭동지는 평양시 제217호선거구 제63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작업반장 지철향과 사동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분조장 맹옥화에게, 강석주동지는 평양시 제34호선거구 제3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릉라인민유원지관리소 지배인 김성혁과 중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옥류관 직장장 김성일에게 투표하였다.

김영주동지는 평양시 제271호선거구 제3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성봉과 삼석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농장원 김춘길에게, 최영림동지는 평양시 제59호선거구 제97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326전선공장 기사장 김성윤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326전선공장 직장장 김상히에게 투표하였다.

3면으로 계속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된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성상 백두의 눈보라만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와 신심에 넘쳐있다.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에 따라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으며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민족통일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의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환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게 된다.

대회에는 해내외의 각계층 대표들과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참가한다.

우리는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것을 희망하는 각계층의 남녘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민족통일대회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기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발전력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자그마한 철도공장에 불과하던 기업소가 굴지의 차량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1945년 11월에 이 공장을 창립해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나이이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나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박차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그들이 지난 70년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966년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로동계급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기업소의 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회관운영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특히 당이 제시한 5대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객차직장, 과학기술보급실, 1가공직장, 전선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기업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세대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최단기간안에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객차의 모양은 나라의 풍치와도 관련되므로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는데 기업소에서 려행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객차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객차의장품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객차들의 도장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면서도 사람들이 로선별, 용도별에 따르는 렬차들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다양하게 하며 그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본때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에서는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사업,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생산구역, 생활구역, 교양구역을 명백히 구분하여 잘 꾸리며 특히 생산현장을 완전히 때벗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돌아보니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렬차는 집무실이였고 집이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였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낮이나 밤이나 렬차에 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뻗어있는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당적,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밀고나가며 첫삽을 박는 각오를 안고 달라붙어 하루빨리 우리 나라 철도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변모시키자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철도차량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리라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공장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철도현대화를 위한 벅찬 투쟁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떨쳐갈 충정의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정권건설 업적을 받들어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전국의 선거자들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일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조국의 최북단 온성군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선거장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일심단결의 참모습과 불패의 기상을 또다시 시위하게 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이하는 경축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선거장들에는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우리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전체 선거자들이여! 모두다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찬성투표하자!》의 구호와 선전화들이 나붙어있었으며 람홍색공화국기와 붉은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의 공연 등이 펼쳐진 전국의 선거장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대의원선거에서 높은 공민적의무를 다하려는 선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의 공화국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정권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전체 선거자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선거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존함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로 만방에 빛나는 우리 공화국정권이야말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정권이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우리 문천시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나가겠다.

선거표를 받아쥐고 선거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양시 제136호선거구 제85호분구 선거위원회 위원장 김창건은 공화국공민이면 평범한 근로자도 인민의 대의원이 되여 나라의 정사,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강계시 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정춘화는 신발수리공에 불과한 자기도 인민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였다고 하면서 고마운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겠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수호전에서 위훈떨친 로병들은 나라없던 그 세월 사람값에 들지도 못하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고 하면서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애국의 한표를 바치였다.

문천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호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정권이 제일, 우리 생활이 제일

각계층 선거자들은 공화국정권을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정권으로 건설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정권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선거장들에 들어섰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대화원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우리의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인민의 대표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의 조종성, 신정생부부와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천동의 김기숙을 비롯한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종합농장 작업반장 김주영에게, 로두철동지는 평양시 제116호선거구 제45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방직기계공장 직장장 정환철과 선교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자 김수남에게, 조연준동지는 평양시 제55호선거구 제4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김승현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화장품공장 로동자 장은영에게, 태종수동지는 함경남도 제30호선거구 제71호분구에서 함경남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장길룡과 함흥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학부장 리선일, 회상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 부소장 김문균에게 투표하였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시 제68호선거구 제17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부지배인 김영춘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작업반장 김수경에게,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시 제74호선거구 제56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류순과 보통강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부직장장 김성철에게 투표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선거자들을 만나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우리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고무해주고 그들이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인민의 혁명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리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져나가는 온 나라 전체 선거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신념과 맹세가 용암처럼 끓어넘치였다.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개성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송한파수농장 지배인 박희민, 자강도체신관리국 국장 윤철희, 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개성시 해선협동농장 작업반장 김광철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의지를 표명하였다.

선거장을 나서는 국가과학원 국장 김준남과 공훈과학자들인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 한철훈, 환경공학연구소 실장 김혜림부부의 가슴속에도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는 참된 애국자로 한생을 빛내일 결의가 차넘치고있었다.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여나갈 일념으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국의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의 근로자들도 더 높은 생산성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해나갈 열의드높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선광,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작업반장 리화경,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은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쳐갈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는 성강과 황철의 철강재생산기지, 대안과 룡성의 기계제작기지, 순천과 북창의 탄전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투표한 서두수발전소 초급당비서 원일학을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더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강성국가건설전역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나가는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애국의 마음들을 선거표마다에 담았다.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교원들과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도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안고 선거자들 누구나 뜻깊은 하루를 빛나게 장식해가는 전국의 선거장들에서는 《조국찬가》, 《인민의 환희》,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등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시대의 벅찬 숨결이 담겨진 노래들이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내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 우리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남포시 천리마구역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함흥시 동흥산구역에서— 특파기자 박동석 찍음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본사기자 찍음

1면에서 계속

김양건동지는 남포시 제143호선거구 제63호분구에서 남포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직장장 박일신과 천리마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리경철에게, 곽범기동지는 남포시 제104호선거구 제70호분구에서 남포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작업반장 리정렵과 강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청산협동농장 작업반장 조호남에게, 오수용동지는 황해북도 제96호선거구 제124호분구에서 황해북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직장장 김경철과 송림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산철에게, 김평해동지는 평양시 제168호선거구 제30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교장 최영순과 대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대성구역 5월13일룡남고급중학교 교장 박정순에게, 최부일동지는 평양시 제273호선거구 제56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현광철과 삼석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작업반장 김주영에게, 로두철동지는 평양시 제116호선거구 제45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방직기계공장 직장장 정환철과 선교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자 김수남에게, 조연준동지는 평양시 제55호선거구 제4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김승현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화장품공장 로동자 장은영에게, 태종수동지는 함경남도 제30호선거구 제71호분구에서 함경남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장길룡과 함흥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학부장 리선일, 회상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 부소장 김문균에게 투표하였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시 제68호선거구 제17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부지배인 김영춘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작업반장 김수경에게,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시 제74호선거구 제56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류순과 보통강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부직장장 김성철에게 투표하였다.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키우시여

전국의 선거자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애국의 한표, 찬성의 한표를 바치였다.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 충실히 복무할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면서 우리 공민들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나라의 주인이며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복무자, 심부름군입니다.》

모든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충복들로 키우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이 오늘도 선히 어려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자신의 좌우명이며 자신의 정치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실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이민위천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해나갈 때만이 당과 뜻을 같이하고 당을 진실로 따르는 참된 일군,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으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 땅 어디에서나 빛나는 글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불멸의 글발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좌우명으로 새겨주신것이다.

어느해인가 새로 개건된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일군들에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때없이 속으로 곱씹어 외워보군하는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단위 책임일군을 우리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그렇게 불러우는 일군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자신의 혁명전우이며 진짜동지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 심부름군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시면 그리도 절절히 가르치시였겠는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당이 바라는대로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진군길우에 력력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고귀한 명언을 우리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삶의 지침으로 새겨주신것이다.

《대중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실한 심부름군이 바로 참된 일군이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군중관점이 바로선 일군은 웃사람보다 아래사람을 더 어렵게, 더 신중하게 대하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뜻이 그대로 글발을 이룬 주옥같은 명언들이다.

절세위인의 명언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을 비롯한 우리 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영원한 좌우명,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마을에 나갔던 한 일군이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농장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온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이 더없이 미덥고 반가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 일군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이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뜻에 일군은 깊이 감동되였다. 그리고 그이의 뜻을 실천으로 받드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한생을 살리라 마음다지였다.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우리 일군들에게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라고,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한것이라고 하시며 한평생을 이민위천의 력사로 엮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인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 심부름군들의 대부대를 키우신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련면히 이어져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데 대하여 늘 강조하시며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력사, 불같은 헌신의 력사를 감동깊이 엮어가고계신다.

오늘도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인민의 충복으로 생을 빛내일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인선

일심단결의 위력, 공화국정권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

하늘땅에 넘치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뜻깊은 선거의 날이 흘러갔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정권의 불패성과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인민의 심장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북변의 철광석생산기지로부터 석탄증산의 동음드높은 탄전들이며 대화학기지들과 경공업기지들, 풍요한 가을을 이 땅우에 펼칠 신심에 넘쳐있는 협동벌들 그리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해가는 과학연구기지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던 《선거의 노래》가 지금도 귀전에 메아리친다.

뜻깊은 선거의 날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속에 맞이할 한마음으로 가슴끓이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뜨거운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왔던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더 높이 떨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땅에 차넘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정권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새기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간의 참된 삶도 행복도 꽃펴날수 있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오랜 탄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대표들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고보니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그들모두가 우리와 함께 일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입니다. 진정한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싶은 일념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뿐이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인민,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간고해도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려는 결사의 의지를 지닌 이 나라 모든 공민들의 심장에서 하나같이 끓고있는 신념과 의지의 맹세인것이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였던 신의주방직공장 방직공처녀의 심정은 또 어떠하였던가.

《어린시절 선거장으로 가는 부모의 얼굴에 어찌하여 그처럼 밝은 웃음이 비껴있었는지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진정한 삶의 품에 대한 한없는 긍지였고 신뢰였습니다. 나의 꿈을 자래워주고 희망을 꽃피워준 어머니조국이 오늘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거표를 결코 가볍게 받을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높뛰고있는 보답의 일념도 함께 담아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정권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뼈에 새기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령도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공화국정권, 항일의 불길속에서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며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높이 떨쳐질수록, 그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 선군조선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 길에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는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공화국정권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은 굳건히 고수되고있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민적시책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인민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로, 만복의 터전으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존엄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친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들이 심장의 환호성을 터치고있다.

우리의 혁명주권아래서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자랑스럽게 떨쳐질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불타는 애국의 열의

인민의 내 나라가 제일

이제는 내 나이도 여든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친 나의 마음은 지금 청춘남녀들의 심정그대로이다.

해방후 저주로운 남녘땅에서 소년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나였다. 하루빨리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 참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싶었다. 그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남녘땅을 해방했을 때 선참으로 의용군에도 입대하였다.

빈농의 딸로 태여나 해방의 희열도 맛보지 못하고 갖은 수모를 받아온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나는 고령의 몸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인민의 나라, 인민의 제도를 마련해주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에게 값높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여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켜갈 때 참된 삶이 담보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끝없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흐르는 선거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는데 여생을 깡그리 바칠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안악군 읍 102인민반 전쟁로병 김 태 을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하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서기 위해 부글부글 끓는 때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고보니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

빛나는 훈장들을 달고 선거장으로 들어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들을 대하느라니 가슴속깊이 갈마드는 생각이 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계급을 세상에서 제일 값높이 내세워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굽이 찌릿이 젖어든다.

이번에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사람들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로동자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공민들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정치생활에 참가하여 자기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받는 내 나라의 현실, 이것은 돈과 권세가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맡은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겠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작업반장 백 승 조

남다른 긍지

태여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치였다. 그래서인지 조국을 위해 아직은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는 나에게도 당당한 공민의 권리를 안겨준 어머니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치게 안겨온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았을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내가 배움의 권리,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아안으며 자라나 오늘은 참다운 정치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더우기 나와 같은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는 긍지높은 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 우리 인민주권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양말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나는 우리의 운명과 존엄, 보람찬 사회주의생활과 미래를 지켜주는 고마운 인민정권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

평양양말공장 로동자 홍 수 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번에 도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였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큰 믿음이여서 격정을 금할수 없다.

아마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나의 심정과 같을것이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의 부모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나의 부모도 해방전 사람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조국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에 아버지는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왔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나에게 조국이 있고서야 개인의 행복도 존엄도 있다고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만을 받아안으면서도 나는 그때까지 조국의 귀중함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나서면서, 더우기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식료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일군으로 일하면서 나는 내가 안겨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하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로고가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던가.

인민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를 때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는 우리들이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으로, 3중3대 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공장으로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많은 콩우유를 생산하여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초, 고급중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고있으며 시안의 주민세대들에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공급하고있다.

이 나날에 평범한 녀성에 불과한 나도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나날이 커만 가는 당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을 때마다 나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군 한다.

문천식료공장 지배인 정 평 옥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드팀없는 의지

평양시 제34호선거구 제1호분구를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정권의 힘은 인민정권을 지지하는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입니다.》

7월 19일 아침 평양시 제34호선거구 제1호분구를 찾았을 때 우리의 가슴은 흥분으로 세차게 달아올랐다.

공화국기발들과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단장된 선거장,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노래소리, 명절옷차림을 하고 서로 서로 앞을 다투며 선거장으로 모여오는 선거자들…

선거장은 환희로운 경축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고마운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애국의 일념이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 그대로 비껴있었다.

투표가 시작되였다. 우리 인민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선거자들의 열의가 그대로 애국의 한표한표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리는 방금 투표를 끝낸 중구역인민위원회에서 일하고있는 공화국영웅 태영춘동무를 만났다. 수십년세월 조국보위초소에서 복무의 길을 걸어온 그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이끌어주는 고마운 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끝까지 지키고 끝없이 빛내가야 한다는 마음을 안고 찬성투표하였습니다.》

불타는 애국의 열의를 안고 찬성의 한표를 바친 기쁨과 긍지가 그의 얼굴에 차넘치고있었다.

투표를 마친 전쟁로병 권종범로인이 온 가족을 앞세우고 우리를 찾아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귀중한 조국을 지켜 정찰병으로 용감히 싸운 나날을 되새기고나서 그는 말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을 인민의 대표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우리 인민정권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곁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고있던 그의 손녀 권영심동무도 한마디 하였다.

《선거표를 결코 가볍게 받을수 없었습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도 별로 없는 저에게도 선거표를 안겨준 고마운 우리 인민정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새 세대로서, 공민으로서 앞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선거장에 펼쳐진 녀맹중앙예술선전대원들의 이채로운 예술소품공연으로 하여 선거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와 만난 모란봉구역인민병원에서 일하는 백현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가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저희 부부는 인민들의 구강치료를 맡은 의사이고 맏딸은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에서, 둘째딸은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떠나서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안고 찬성의 한표를 바쳤습니다.》

이것을 어찌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영원한 신념의 맹세가 선거장에 굽이치고있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일하는 김봉일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오늘의 선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이 기세로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습니다.》

그 말에 화답하듯 선거장의 노래소리, 춤판은 더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불타는 맹세, 드높은 열의와 격정에 넘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10월의 대축전장에 축포가 터져오를 환희의 그날이 우뜻이 어려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현경철

창조적투쟁과 위훈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겠다

박정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정치부 부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청년강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거표를 받아쥐고 선거장으로 한걸음한걸음 옮길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사회주의정권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갈마들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할 맹세가 더욱 억세여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당을 따르는 청년전위들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조선속도창조에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 정치부일군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나가겠다.

현장방송과 방송선전차를 통한 선전선동공세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공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기동예술선동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폭탄들로 백암전역을 들었다놓겠다.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세차게 들이대여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백암전역에서 화산처럼 타오르게 하겠다.

우리는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정치사업작전도, 대중의 정신력발동도 격전장한복판에서 야전식으로 진행해나가겠다.

룡천군 장산리당비서 강진명동무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고보니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다.

나는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올해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겠다.

조건은 불리하고 난관도 많지만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던 장산리녀성당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만 확고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오늘 우리 리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고나서 더욱 굳게 다지는 맹세이다.

우리 당일군들은 늘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회관,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린데 기초하여 그를 통한 5대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움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리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풍요한 가을을 반드시 펼쳐놓겠다.

수동탄광 초급당비서 최철호동무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성과 우월성이 다시한번 과시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우리 탄광에서 3명이 수동구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였다.

인민이 주인된 고마운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평범한 탄부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었겠는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는 가슴벅찬 현실이다.

지금 우리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7월 석탄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탄부들의 애국열의를 어떻게 폭발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몸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두고 살도록 탄부들의 심장속에 충정의 불을 세차게 지펴주겠다.

우리 일군들은 모든 탄부들이 석탄증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제일동지, 고마운 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충신이 되도록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조국수호,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작전도 지휘도 막장에서 하는 야전형의 지휘성원들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겠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탄부들의 열의가 석탄생산에서 남김없이 폭발되도록 송풍기적역할을 더욱 잘해나가겠다.

동평양화력발전소 라빈직장 보수작업반 당세포비서 문혁동무는 찬성의 선거표를 바치고 나오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티없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온 대의원후보자들처럼 조국이 알고 인민이 떠받드는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결의가 더욱 굳어진다. 나뿐만아니라 우리 당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애국충신들로 준비시킬 맹세가 백배해진다.

당원들모두가 전력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기대점검과 보수정비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 자신부터가 실천적모범을 보이겠다.

그리하여 우리 당세포를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 일심단결의 성새를 받드는 성돌로 만들겠다.

그 마음 안고 지금 당장 일터로 달려나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기대들마다 증산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려갈 결심이다.

현춘옥 강계시녀맹위원회 위원장은 선거표를 받아드는 순간 정말 생각이 많아졌고 결심도 굳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크지도 무겁지도 않은 선거표였지만 그것이 안겨주는 공민적 긍지와 자각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대대로 내려오던 남존녀비의 봉건적인 질곡에서 우리 녀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그럴수록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떨치는 길에서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할 결심과 각오가 더욱 억세여졌다.

지난 기간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우리들은 녀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야학동의 녀맹원들은 3년전부터 45만장의 보도블로크를 생산하여 시안의 길음길들에 깔아주었으며 석현동의 녀맹원들은 석현공원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여러해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에 대한 환영사업을 진행하여온 시가 전투적기상과 량만으로 들썩하게 하고있는 사람들도 우리 녀맹원들이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에서도 녀맹원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현장에 천막을 치고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53만장의 블로크를 생산하여 사람들을 놀래웠고 기초굴착, 벽체축조, 콩크리트타입 등 제기되는 건설과제들도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며 해제끼고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더욱더 앙양된 녀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 길에서 선군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겠다.

본사기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철도성려단에서— 본사기자 전 성 남 찍음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참된 삶의 자욱 새기리

오늘도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신의주기관차대 대장 홍성일동무와 수송전사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발을 높이 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들속에는 신의주기관차대 대장 홍성일동무도 있다.

그는 대고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기관차수리정비와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해마다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수리중대원들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높이가 19m에 달하고 건평이 1 260㎡나 되는 기관차수리기지를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운 기관차수리기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홍성일동무의 완강한 실천력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선군시대 일군의 일본새가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신의주기관차대의 일군들과 기관사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그것은 자체의 기관차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리기일을 앞당겨 맡겨진 년간 수송계획을 또다시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새해 첫날부터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기관차수리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바로 이것이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증요물동수송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들어서려는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에서 맥박치고있는 혁명적신념이다.

하기에 지난 한해동안에 남들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덩지가 큰 기관차수리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을수 있었던것이다.

이것은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니다.

기관차대에서 기관차수리기지를 건설하는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일부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장 홍성일동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건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수송계획을 수행하자면 기관차수리기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수리기지를 우리의 힘으로 일떠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무슨 일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배짱이 비껴있었다. 그런데 기관차수리기지를 건설하자면 세멘트와 철판지붕을 비롯한 많은 자재가 있어야 하였다. 그는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기관차대당조직에서도 기관차수리기지건설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는 기발한 착상으로 자재를 적게 쓰는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맡은 수리중대 전투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기관차수리기지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수리기지를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수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이렇게 기관차수리기지를 건설해놓으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종전에는 기관차 소수리만 하자고 하여도 8일이 걸리던것을 지금은 하루이틀에 해제끼게 되였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홍성일동무는 자체로 중수리를 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갖추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한것은 지난 시기 이곳 기관차대에서는 많은 시간과 로력을 들여 다른 곳에 가서 기관차중수리를 하였기때문이였다.

수리중대원들과 함께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는 자체로 기관차중수리도 할수 있는 설비와 공정을 더 꾸려놓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이곳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관사들과 종업원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이미 있던 축산기지를 개건하면서 동시에 의주군 대산리의 산골짜기에 새로운 염소방목지를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달라붙었다. 산중턱에 합숙건물과 염소우리를 건설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세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물동량을 전부 등짐으로 날라올려야 하였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등짐을 지고 달리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축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서고 염소마리수가 늘어나 욱실거리는 자랑스러운 풍경이 펼쳐졌다.

또한 양어장도 건설하고 태양열온실과 버섯생산기지도 애써 꾸려놓아 종업원들에게 푸짐한 식탁이 차례지게 하고있다.

오늘도 홍성일동무와 기관차대수송전사들은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불같은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선경을

자 성 군 에 서

온 나라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속에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가려는 자성군 인민들의 불같은 열의와 애국적투쟁으로 하여 운봉지구가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합니다.》

조국의 북변 압록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운봉땅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두차례나 찾아오시여 운봉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발전소건설과 군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의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운봉지구에는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아담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수십동이나 새로 일떠서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영광의 고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아름답게 전변시킬 군당위원회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지휘밑에 지난해에 수십동의 문화주택을 일떠세운 군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체없이 2단계살림집건설전투에 진입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통나무를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수십리나 떨어진 먼곳에서 운반하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드는 한편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온갖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전으로 전환시켜나갔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드세차게 벌어지는 속에 군당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대오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기초굴착을 비롯하여 공사시작부터 단위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불리한 공사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과 운반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공사를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또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비상히 높여나갔다.

행복은 그 누가 저절로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완강한 투쟁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는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단 몇달사이에 수십동의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일떠서 두메산골 자성군의 운봉지구가 종전의 모습을 흔적도 없이 털어버리고 인민의 행복이 더욱 꽃피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운봉지구가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군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김 성 민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훈의 자욱을 새기여가는 영예의 혁신자들을 — 무산광산련합

변함없이 걷는 충정과 의리의 길

스스로 걸머진 짐

상원돌기와광산의 일군들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이른새벽마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 남먼저 들어서는 로인들이 있다.

그들은 고향집마당과 그 주변의 관리사업을 정성껏 진행한 후 가지고온 물통마다에 샘물을 정성껏 담기 시작한다.

그들이 바로 만경대샘물을 정히 안고 시안의 중요단위들과 건설장들을 매일과 같이 찾군 하는 백현비, 변옥녀, 윤옥녀, 현월련, 장매옥, 윤선옥, 백명주, 안갑순, 리선화로인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평양의 샘물할머니들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샘물할머니들이 만경대샘물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1월 어느날이였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다는 소식에 접한 백현비로인의 마음은 끝없는 흥분으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품이 없었다면 나라없던 그 세월 빈농의 자식으로 태여난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받아안은 참다운 삶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잘 알고있는 그였기에 지난 40여년간 만경대고향집 주변관리사업을 하루도 빠짐이 없이 진행해온 백현비로인이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절세위인들께 바치는 충정이 부족한것만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만수대창작사로 만경대샘물이 든 물통을 안고 들어서는 할머니가 있었다. 백현비로인이였다.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에게 만경대의 샘물을 마시며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 모셔줄것을 부탁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만수대창작사를 찾는 백현비로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안의 여러곳에서 사는 로인들도 따라나섰다.

날이 갈수록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하여 만경대샘물을 안고 그들이 매일과 같이 찾는 곳은 늘어만 났다.

얼마전부터 그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응축되고 주체적건축예술의 상징으로 되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들이 날라야 할 샘물량도 많아지게 되였다.

이른새벽부터 물통을 들고 시안의 여러곳을 찾아 만경대샘물을 날라주고나면 날이 어두워서야 집에 들어서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때로는 년로한 몸에 지쳐 앓아누울 때도 있었지만 로인들은 새날이 밝으면 또다시 물통을 들고 만경대고향집으로 향하군 한다.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식들이 오늘은 좀 쉬라고 말할 때마다 샘물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이 심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라. 마지막순간까지 이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련다.》

오늘도 그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속에는 상원돌기와 광산 일군들도 있다.

생산활성화와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많고 많은 일감을 안고 뛰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짐이 있다.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이다.

몇해전 어느날 지배인 전시종동무는 길가에서 표창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떠나가는 한 녀성군인을 만나게 되였다. 광산의 오랜 로동자인 김룡호동무의 딸이였다. 군사복무를 잘하라며 작별인사를 나누던 전시종동무는 그의 안색이 밝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례년에 없는 가물피해로 어느 집이라 할것없이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그때 허리까지 다쳐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는 딸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가벼울수 있었으랴.

걱정이 어린 눈길로 산기슭의 고향집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떠나가는 녀성군인의 모습이 전시종동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총잡은 병사들이, 오직 원쑤의 심장만을 겨눠야 할 병사들이 고향의 부모걱정으로 순간이라도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광산일군들속에서 종업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선풍이 일었다.

일군들이 집에서 가지고나온 염소들이 자체축산기지의 종자가 되였으며 앞장에서 서서 일군 부업밭들에 알찬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후방가족들의 먹는 문제, 땔감문제가 늘 사업수첩에 주요항목으로 올랐으며 일군들은 그 해결을 위해 신발바닥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언제인가 광산로동자들속에서 일군들이 평양에 회의갈 때마다 화물자동차를 타고다니니 남보기 부끄럽다면서 우리 광산에서도 승용차를 한대 구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광산의 일군들은 그 제기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몇몇 일군들을 위하여 새 승용차를 구입한다는것은 그만큼 종업원들의 생활문제해결에 지장을 준다는것을 의미했던것이다.

오늘 광산의 생산과 후방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화물자동차에는 바로 일군들의 이런 깨끗한 마음들이 어려있다.

그런 마음을 안고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돌봐준 사실들이 편지가 되여 초소의 자식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감사의 인사와 군사복무를 더 잘하겠다는 결의가 담긴 회답편지들이 날아와 종업원들의 생산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지난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 지붕재생산이 한창이던 어느날 뜻밖의 사정으로 정전이 되였다.

채취하여놓은 지붕재가 채석장안에 가득찼는데 그것을 운반해야 할 권양기가 멎는 바람에 작업이 중단되였다.

하지만 로동자들은 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수십kg이나 되는 돌판들을 짊어졌다.

현장에 달려나온 일군들이 그만두라고,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때 그들은 저저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축산기지건설을 빨리 끝내야 초소에 선 우리 자식들에게도 더 많은 고기를 먹일게 아닙니까.》

《군대에 나간 저의 아들도 세포등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무거운 돌판을 메고 운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날계획도 넘쳐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산성과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성과로 이어졌다.

10여년전만 하여도 주저앉아있던 광산이 오늘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 몫을 당당히 제끼는 광산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시종, 김정철동무들을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이 후방가족을 돕는것이 곧 원군이며 당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광산의 기본력량인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인데 있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존화면에서 뵈올 때마다 광산일군들은 마음속결의를 가다듬군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후방의 가족들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본사기자 승 철 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일할 권리,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받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해주고있다.

얼마전 작업의 쉴참에 초급당비서는 아직 생활은 유족하지 못해도 사람들사이에 동지애가 흐르고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도덕적기초가 더욱 굳건해지고있다는것을 최근 당보에 소개된 미풍자료들을 실례들어가며 실감있게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전체 인민이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는것을 실생활과 결부시켜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자본주의선거제도와의 대비속에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직장안의 전체 종업원들은 높은 생산실적으로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일 한마음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치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명 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9일 은종인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우에 후손만대 복락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외국손님들 평양과 지방의 선거장들을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평양과 지방의 선거장들을 19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참관하였다.

평양시 제161호선거구 제129호분구, 제91호선거구 제110호분구, 청진시 제208호선거구 제17호분구를 비롯한 여러 선거장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열의에 넘쳐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청진주재 로씨야련방총령사관 성원 올라지슬라브 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 일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에 이어 또다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을 참관하니 기쁘다.

7월 1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명절과 같은 뜻깊은 날이다.

이날은 또한 로씨야의 뿌찐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15돐이 되는 날이다.

그는 선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앞에서 함경북도예술단 예술인과 함께 노래를 불러 절찬을 받았다.

로씨야영화대표단 단장 유리 미쥬쉰은 조선인민의 선거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는 로조친선의 해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다,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이 계속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주조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 카우쟈쿠투부딘 아흐메드는 선거장을 돌아본 다음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였다.

선거장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어려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를 비롯한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 자기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권에 대한 긍지, 자부심이 어려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철령아래 청춘과원에 울리는 사랑의 노래

고산과수농장병원을 찾아서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고산과수농장을 돌아보던 우리의 눈앞에 2층으로 된 멋쟁이건물이 나타났다.

청춘과원과 어울려 더욱 이채롭게 안겨오는 그 건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농장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지난해 새로 일떠선 고산과수농장병원이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담당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의료일군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훌륭한 의료봉사기지에 대한 자랑을 들려주었다.

주민들의 그 목소리들을 먼저 취재수첩에 적은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병원에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기관들에서 담당구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 잘하며 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여러가지 질병들을 미리막고 의사담당구역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주변에서 약나무와 약초밭을 가꾸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였다.

그들중에는 원장 임성재동무도 있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안으로 들어섰다.

첫눈에 모든것이 환자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꾸려졌다는것이 알렸다.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알림판들과 치료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만든 위생상식카드들, 복도에 게시한 위생선전판마다에서 농장종업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바쳐가는 의료일군들의 열정의 세계를 충분히 엿볼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에 갖추어진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은 우리가 어느 중앙병원에 와있는듯 한 느낌이 들게 할 정도였다.

해방전에는 단 한개의 병원도 없었다는 여기 고산땅에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아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의료봉사기지들이 생겨나고 오늘은 전변의 새 모습과 더불어 중앙병원 못지 않은 현대적인 병원이 일떠섰으니 어찌 이곳 사람들의 격정이 크지 않으랴.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원장은 병원에서 리용되고있는 거의 모든 의료설비들이 우리의것이며 치료효과도 높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몇개의 의료설비밖에 없던 병원은 국산화된 종합수술대, 복부초음파진단기, 심전계, 위내시경, 구강종합치료기, 이비과종합치료기, 해산대와 보육기 등 50여종에 150여점의 의료기구와 설비들을 갖춘 종합적인 치료예방기지로 전변되였다.

원장의 이야기는 병원건설의 첫삽을 박던 날 보건성 책임일군의 방에서 진행되였다는 협의회내용으로 아지를 쳐나갔다.

그날 성일군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책임일군은 당의 구상에 따라 전변되고있는 고산과수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새로 건설되는 과수농장병원전경도를 펼쳐놓았다.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펼쳐지는 력사의 고장에 현대적인 병원을 일떠세워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고 호소하면서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농장종업원들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하자면 치료실부터 현대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병원을 더 잘 꾸리고 의사담당구역제를 발전시켜 의료봉사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날 협의회에서 성의 일군들은 한가지이상씩 좋은 방도를 찾아내여 병원건설을 적극 도와나설것을 결의하였다.

지방출장길에서, 때로는 명절날에도 자주 병원을 찾아 건설에서 필요되는 자재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주인된 심정으로 진정을 바치며 헌신하는 성일군들의 모습에서 이곳 의료일군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시금 자각하였다.

농장종업원들과 주민들이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갈 그날을 그려보며 성일군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 이곳 의료일군들은 병원을 1차의료봉사는 물론 여러가지 대중약물들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고려약, 신약제조실까지 갖춘 현대적인 병원으로 완벽하게 꾸려나갔다. …

병원건설에 바쳐진 뜨거운 마음들을 읽으며 2층으로 올라선 우리의 발걸음은 고산과수농장전경이 환히 보이는 홀에서 또다시 멈추어졌다. 입원환자들이 휴식할수 있도록 고급의자들과 알탁들이 놓여있는 홀의 창문너머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바다가 우리의 눈에 비껴들었다.

여기에 서기만 해도 당장에 모든 병이 다 달아날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생학적요구에 맞으면서도 환자들이 과수농장의 전경도 부감할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찾기 위해 618건설돌격대 지휘부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이 모두 떨쳐나 무려 10여차례나 병원위치를 바꾸어가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텔레비존을 마주하고 입원생활을 락천적으로 보내고있는 환자들도 만나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꼭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평범한 농장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훌륭한 병원을 마련해준 고마운 당의 사랑에 기어이 보답할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그 어느 치료실, 그 어느 입원실에 들려보아도 인민을 위한 당의 해빛같은 사랑이 슴배여있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치료예방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갈 의료일군들의 열의 또한 높았다.

이런 단위에 어찌 성과가 없으랴. 늘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 본인들도 모르고있던 질병들을 찾아내여 치료해주는가 하면 종전같으면 상급병원으로 파송하군 하던 환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치료하여 소생시키는 놀라운 기적도 련이어 창조하였다.

고산땅에 일떠선 병원을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평범한 농장종업원들과 주민들이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아래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만 꽃펴나는 자랑찬 현실이며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이 아니겠는가.

조국의 운명 지키려 철령을 넘어 몇천리라는 노래와 함께 비껴오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 바로 그 철령아래 펼쳐진 청춘과원에 울리는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조국을 눈동자처럼 사랑하라고, 조국을 위해,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이기 위해 더 많은 땀을 바치라고.

본사기자 김 옥 별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종말뿐이다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속검은자일수록 비단두루마기를 입는다는 말이 있다. 북남대화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괴뢰들이 놀아대고있는 꼴이 꼭 그 격이다. 최근 괴뢰집권자를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은 입만 터지면 그 무슨 《허심탄회한 대화》니, 《모든 대화가능성》이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늘어놓는 한편 우리더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북남관계파괴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는 괴뢰들의 악습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괴뢰패당이 너무도 뻔한 사실을 놓고 시치미를 떼는데 대해서는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한시라도 동족을 걸고들지 않으면 몸살을 앓는 추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이 분명하다.

입은 삐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하였다.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파연 괴뢰들에게 《대화》니 뭐니 하고 떠들 한쪼각의 체면이나 자격이 있는가.

오늘 북남관계는 정치, 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 이르고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치닫고있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극악한 반통일대결집단인 현 괴뢰집권세력에 의해 빚어진것이다.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대화》타령을 요란히 늘어놓아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뛴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감출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북남대화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건 극악한 대결집단이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진행할수 있다는 대범한 립장도 보여주었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한 과격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하다면 괴뢰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어떻게 대답해나섰는가.

괴뢰집권자는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것이 《대화의 전제》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대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괴뢰집권자의 망동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 반공화국삐라살포, 살벌한 《종북》소동이 벌어졌다.

사실상 괴뢰패당은 우리와 대화하려는 꼬물만 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략에 발광적으로 매달리였으며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있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느니, 《련합훈련은 동맹의 주추돌》이라느니 하는 호전적나발을 줴쳐대며 지난 3월초부터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해나섰다. 동족의 대화노력에 등을 돌리고 외세와 공모결탁하며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린 괴뢰패당의 반역적망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분위기는 끝내 파괴되고 북남관계는 극도의 파국에로 치달았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까닭에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책동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주었으며 반성할 기회도 주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의 대결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세와의 공조로 《모든 고리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북남관계파국을 더욱 심화시키였다. 얼마전 괴뢰들이 서울에 반공화국모략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를 실시한데 이어 조선동해에서는 대규모적인 종합전투훈련을 벌리고 조선서해에서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을 감행한것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공화국도발소동의 일부분일뿐이다.

괴뢰패당이 북남대화는 안중에도 없이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에 얼마나 환장하였으면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 대해 그 무슨 《탄저균생산기지》니 뭐니 하며 악의에 차서 헐뜯었겠는가. 남조선괴뢰들이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불순한 목적밑에 귀순을 강요하는 망동을 부리고 그중 3명을 부당한 구실밑에 강제억류하는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그들이 오로지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하려고 갈수록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비극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패당이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대북압박》을 위한 주요한 고리로 삼고 그 누구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함으로써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괴뢰당국자들의 《대화》타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은 반민족적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을 일삼으면서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을 짓뭉개버리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는 괴뢰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남조선각계에서 고조된 조국통일운동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여론의 강한 압력에 직면한 괴뢰들은 저들이 마치도 북남대화를 바라는듯이 여론을 오도함으로써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고 위기를 해소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까마귀가 백로로 될수 없듯이 괴뢰들이 아무리 《대화》를 광고해도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그들의 반역적정체는 결코 달라질수 없다. 위선과 기만의 탈은 이미 벗겨졌다. 남조선괴뢰들이 《대화》를 떠드는 그 입으로 그 무슨 《제제붕괴》니, 《공포》니 하면서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계속 벌리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자나깨나 동족을 해칠 야망에 사로잡힌 대결미치광이들의 《대화》타령에 파연 누가 속아넘어가겠는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어 숨을 구멍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괴뢰패당은 시커먼 속통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타령을 작작 늘어놓아야 한다.

괴뢰당국자들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무분별한 반공화국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킨 저들의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괴뢰들은 그 어떤 요설로써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심 철 영

공화국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는것은 반인륜적인 랍치행위

재미동포언론이 강조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공화국주민들을 강제억류한 남조선괴뢰당국의 반인륜적만행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당국이 지난 6월 22일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조난당한 북주민 5명을 모두 송환해야겠으나 그중 3명을 《귀순》을 구실로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있는것은 반인륜적인 랍치행위로서 내외의 규탄을 받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억류된 북주민 3명의 가족, 친척들과 송환된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가족들과의 직접대면조차 거부하며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처자들을 생리별시킨 남조선당국의 비인간적만행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터뜨렸다고 밝혔다.

북주민들을 송환하지 않는것은 국제관례법에도 어긋날뿐아니라 인도주의적문제에서도 전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우기 북주민들을 상대로 《귀순》공작을 벌린것자체가 륜리나 도리에도 어긋나는 비인간적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인도주의적문제까지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며 송환하지 않는것은 랍치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실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서로 공모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북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유인, 랍치하여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강제억류한 북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불법적으로 북주민들을 유인, 랍치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해왔음을 스스로 립증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지배세력의 범죄행위에 추종하면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공모자로 놀아댄것이 바로 미국식민지노예 남조선당국이라고 지탄하였다.

글은 남조선당국이 표류된 북주민들가운데 돌려보내지 않은 3명을 즉시 송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괴뢰패당의 탄압소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6일 서울의 종로구에서 집회를 가지고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괴뢰패당의 무차별적인 탄압소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100여명의 파쑈경찰들을 내몰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의 사무실과 인쇄소 등 6곳을 강제수색하고 단체핵심성원들에게 체포령장을 발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뿐만아니라 민통선평화교회 례배당에도 탄압의 마수를 뻗치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재미동포학자 김상일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들씌웠으며 미군의 세균전책동에 항의하여 투쟁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련행하였다고 성토하였다. 더욱 분노를 금할수 없는것은 심하게 앓고있는 변호사 김승교의 집을 강제수색한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당국이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미군의 세균전책동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주통일과 민주, 민생을 웨치는 단체와 인사들을 마구 탄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의 가혹한 폭압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하여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실업문제의 본질을 외곡하는 괴뢰당국을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청년실업 원인부터 잘못 짚은 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있는 가운데 당국이 《청년고용종합대책》이라는것을 월중에 발표할것이라고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업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하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라는것이 청년실업자들을 두번 죽이는것이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지난 6월 29일 상공회의소가 대학졸업생이 너무 많은것이 실업의 원인이라는 황당한 분석과 해괴한 해결방도라는것을 내놓은데 대해 폭로하였다.

사설은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은 매우 피상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실업대책놀음은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감언리설로 민중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집권자와 여당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전혀 기대할것이 없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 《정부》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소동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이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조선서해에서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을 벌려놓고 북침전쟁열을 고취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유사시 조선반도에로 증강되는 미제침략군의 병력과 장비들을 수송, 전개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감행된 이 훈련은 그 내용과 진행양상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이였다. 연습에는 남조선괴뢰군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무력을 포함한 1700여명의 병력과 40여척의 함정이 참가하였다.

괴뢰들은 조선서해의 불리한 작전환경을 극복하고 유사시 제기될수 있는 임의의 정황에도 대처할 기도밑에 이 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호전광들은 연습당시 항만을 정상적으로 리용할수 없는 정황을 조성하고 길이가 560m에 달하는 부교까지 설치하면서 공격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에 미쳐날뛰였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증강되는 병력을 북침공격작전에 신속히 투입할 흉계에 따른것으로서 괴뢰호전광들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서해로부터의 북침상륙작전을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야망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새형의 정찰기 2대를 2017년까지 도입한다는데 대해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전광들은 《미싸일발사탐지》와 《통신감청》이니, 《실시간파악》이니 하며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이미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에 리용하게 될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 다른 2대의 정찰기를 끌어들이기로 한것은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공격무력을 증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괴뢰패당의 호전적광기가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도발책동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고있는 전체 조선민족의 요구에 배치되는 반민족적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바라고있는것은 동족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이다.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실현에 대한 목소리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에 계속 광분하는 괴뢰호전광들의 책동은 그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에 대한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를 부추기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괴뢰집권자이다. 얼마전 남조선괴뢰집권자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북의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졸개들을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에로 마구 내몰았다. 괴뢰집권자가 이렇게 앞장에서 호전적망동을 부리니 그아래 졸개들도 덩달아 대결과 전쟁을 부르짖으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이다. 집권자의 뒤를 이어 괴뢰외교부와 통일부것들은 《북의 옳바른 선택》이니, 《변화》니 하고 고아대면서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의 소굴을 기신기신 찾아가 그 무슨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동맹》강화를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러니 괴뢰군부가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 흉악한 야망밑에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기승을 부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말로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외세와 작당하여 새 전쟁도발책동에 날이 갈수록 열을 올리는 괴뢰패당의 호전적망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다.

괴뢰패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는 저들의 분별없는 망동이 어떤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것인가 하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북남대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치적롱락물이 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패당이 최근 그 무슨 《회담》이라는것을 제안하고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7월 19일 보도 제1099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괴뢰패당이 8.15를 앞두고 그 무슨 《대화》니, 《교류》니 하는것을 극성스럽게 외워대고있다.

얼마전 괴뢰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라는데서 《북남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하고 괴뢰국방부것들은 그 무슨 《서울안보대화》라는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면서 희떱게 놀아댔다.

우리는 이미 괴뢰패당이 륜수없이 《대화》타령을 늘어놓지 말고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속에 품은 대결야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마치도 대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으니 귀머거리 제마음대로 지껄여대는 격이 아닐수 없다.

북남대화가 열리고 북남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 마주앉을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수도 없고 한치도 전진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박근혜패당이 《대화》타령을 늘어놓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조종과 부추김밑에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소동이 계속되고 괴뢰군부깡패들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미국과의 《련합군수지원훈련》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북침전쟁불장난을 그칠새 없이 벌리고있다.

심지어 괴뢰패당은 그 무슨 《체제불안정》이니, 《공포정치》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내돌리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대화상대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대결을 추구하면서 《대화》에 대해 떠벌이고있으니 그러한 말재주를 피우기가 낯뜨겁지 않는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 입으로만 줴쳐대는 《대화》타령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며 그런 유치한 언어유희는 조소와 비난만을 받을뿐이다.

결국 괴뢰들이 떠드는 《대화》란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간특한 기도에서 나온 여론기만술책일따름이다.

괴뢰들이 떠드는 그 무슨 《북남국회의장회담》이라는것도 실현되지면 괴뢰국회가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체모부터 갖추어야 한다.

친미예속과 민족분렬만을 조장하는 법 아닌 《법》들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거수기, 《북인권법》과 같은 대결악법조작에 피눈이 되여있는 보수쓸통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괴뢰국회와 마주앉아 무엇을 론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가관인것은 괴뢰패당이 그 무슨 《서울안보대화》에 우리를 《초청》한다는것이다.

미국과 결탁하여 대결과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괴뢰패당이 그 무슨 《안보대화》를 벌려놓는 그자체가 역겹거니와 그런 너절한 반공화국대결모의판에 그 누구를 《초청》한다고 떠들어대고있으니 실로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북남대화를 추악한 정치적롱락물로 리용하려는 괴뢰패당의 음흉한 기도가 얼마나 도를 넘는 파렴치한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을 다 차버리고 동족을 헐뜯는 악담질과 대결전쟁소동으로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주범들이 그 무슨 《대화》타령으로 시꺼먼 속심을 가리워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리행하겠다는 립장부터 표명해야 한다.

북남대화는 남조선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치적롱락물이 될수 없다.

본사기자

시민단체성원들 부당한 탄압에 항의

남조선의 시민단체성원들이 괴뢰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안당국이 인터네트를 통해 북관련소식을 공유하였다는 구실을 붙여 얼마전 단체성원 박창숙을 구속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공안통치의 행동대장》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올라앉자마자 민중의 버림을 받은 집권자를 살리기 위해 광란적인 폭압정국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4.16련대에 대한 탄압, 박창숙에 대한 구속은 본격적인 공안통치의 예고탄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악법에 걸어 감옥에 가두는 현 《정부》는 짐승만도 못한 무리라고 단죄하였다.

민족분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을 알고 북과 대화를 나누는것으로부터 출발점을 떼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를 《죄》로 몰아대며 파쑈탄압을 일삼는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대역죄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보안법》으로 연명해가는 박근혜《정부》는 민중의 권리를 가로막고있는 력대 최악의 반통일, 인권말살 《정부》라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유린자들을 폭로하는 불법해킹사건

최근 남조선괴뢰들이 어느 한 나라의 기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람을 사들인것이 폭로되였다. 발단은 이 기업체의 업무내용을 담은 문서의 루출이였다. 문제는 이 기업체가 해킹프로그람을 판매한 대상자명단에 괴뢰륙군 5163부대라는 명칭이 올라있는것이다. 그 명칭은 괴뢰정보원이 대외활동을 할 때 리용하는것이라고 한다. 이로 하여 괴뢰정보원이 남조선내에서의 불법적인 도청을 꾀하며 해외로부터 해킹프로그람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루출된 문서에는 5163부대가 지난 2012년 무려 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해킹프로그람을 구입하고 그 이후 해마다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그 기업체에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올라있다.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람은 콤퓨터와 손전화기 등에 사용자가 모르게 은밀하게 침투하여 정보를 빼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지어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감시자에게 전달할뿐아니라 원격조종으로 내용을 삭제할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콤퓨터와 손전화기를 리용하는 대상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괴뢰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에서 벗어날수 없고 비밀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빠질 길이 없게 된 괴뢰정보원은 저들이 해외로부터 해킹프로그람을 구입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태는 괴뢰정보원이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남조선내의 임의의 대상들을 불법적으로 감시, 사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괴뢰정보원의 이 파쑈적망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야당들은 괴뢰정보원에 해킹프로그람의 구입여부와 그 사용정형에 대해 자세히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킹프로그람이 구입된 사실에 주목을 돌리면서 새로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 의사를 표명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람구입이 민간인불법사찰을 노린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서고있다. 언론들은 정보원이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해킹프로그람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 프로그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우길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불법사찰의혹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 단체들은 괴뢰정보원의 망동을 《론박할 여지없는 인권침해》, 《용납 못할 인권유린》 등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심을 잃은 현 《정권》이 해킹프로그람을 《민중의 목을 조이는 흉기》로 써먹었다고 단죄규탄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괴뢰당국은 정보원이 그동안 해킹프로그람을 사용한 콤퓨터나 손전화기는 모두 남조선이 아닌 해외에 있는 대상들이라고 변명해나섰다.

극악한 파쑈광으로 악명떨치는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역도는 남조선에 《북에서 온 첩자가 있다.》고 고아대면서 《첩자색출을 위한 감청은 문제시될것이 없다.》고 뇌까렸다.

괴뢰정보원패거리들도 《안보위협에 따른 대응》이니, 《연구개발용》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반인권적인 불법사찰죄악을 가리우려고 꾀하고있다.

사건발생이후 한동안 찍소리도 못하던 《새누리당》은 괴뢰정보원장이 해킹프로그람구입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지고 야당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부랴부랴 정보원감싸기에 나서고있다. 《새누리당》은 해킹프로그람이 《연구개발용》이라는 정보원측의 변명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야당이 《사찰정국을 조성》하고있다느니,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느니 하고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다.

뻔한 사실앞에서도 오그랑수를 쓰며 발뺌을 하는 괴뢰보수패당의 유치한 망동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현재까지 폭로된 사실들은 괴뢰패당의 넋두리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해킹프로그람구입은 명백히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인민들의 높아가는 반《정부》기운을 제압하기 위한 불법사찰에 그 목적을 두고있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루출된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 괴뢰정보원이 해외의 해킹프로그람수출업체에 남조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기술을 문의하였고 프로그람구입초기에는 손전화기에 대한 감청기능을 특별히 주문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괴뢰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람구입목적이 그 무슨 《안보위협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민간인불법사찰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런가하면 괴뢰정보원이 한 재미동포학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잠수함, 어뢰전문가인 그는 《천안》호침몰사건이후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괴뢰당국이 들고나온 그 무슨 《북어뢰공격설》이라는것이 완전히 날조된것임을 론증하였다.

이것을 아니꼽게 여긴 괴뢰당국은 정보원패거리들을 내몰아 그의 콤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기 위해 해킹프로그람수출업체에 관련기술을 의뢰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은 이후부터 로골화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극악한 인권유린만행들이 정보원의 불법사찰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괴뢰정보원이 집권자의 독재통치를 뒤받침하는 도구가 되여 불법해킹놀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왔다는것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립증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파쑈《정권》에 대한 분노심이 솟구치고있다.

인민들의 높아가는 항거기운을 억누르며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불법사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과거의 군부파쑈독재시기를 방불케 한다.

괴뢰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은 남조선이 얼마나 숨막히는 독재사회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처참한 페허지대인가 하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괴뢰들이 실토할것은 죄악의 진상이며 앉을 자리는 피고석뿐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ㄱ-51112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